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김 희 진 선임연구위원

백 해 정 선임연구위원

요약¹⁾

- 현대의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는 많은 준비와 절차가 요구되었고 결국 이 시기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원가정의 전폭적인 지원여부는 향후 이들의 성인기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 시 원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및 자립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해당 정부부처의 자립지원관련 정책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학업 및 진로계획, 자립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였음. 또한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관련 학계·현장·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FGI 등 가정 밖 청소년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권리보장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들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통합적 지원과 함께 발달단계 및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을 제안하였음. 더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 자립지원 서비스 표준화와 자립지원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종사자 처우개선과 같은 환경·인프라 구축을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일상생활관리 지원, 학업 지원, 취업과 진로 지원과 같은 영역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고유과제인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었음(김은정, 2015;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원가정의 전폭적인 지원 여부는 청소년의 향후 성인기 삶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 청소년의 원만한 성인기 이행이 점점 어려운 과업이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가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 특히 학대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경우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정과 단절과 가족들로부터의 지원 부재를 경험하며 이에 따라 자립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됨(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많은 경우 장기적인 진로 계획 및 준비를 하기보다 당장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학업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하며 저숙련, 고위험군 일을 경험함(김지연, 정소연, 2014).
 -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들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퇴소 후의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자립준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김지연, 정소연, 2014; 정문진, 김수정, 2016 등).
- ▶ 이에 본 연구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출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핍에 주목하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립 관련 문제들과 자립 준비를 위한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비록 원가정의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으나 국가, 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인기 이행과정 및 자립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가능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출’이란 단어의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가정 밖’으로 용어변경을 권고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 2017), 청소년 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9~24세 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연구결과

▶ 선행연구 검토 결과

-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문제와 함께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자립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며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 및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와 원활한 대인관계, 취업 및 직장생활 유지 등이 요구됨.

- 충분한 준비 없는 자립 독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 일자리에서 그대로 성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자립준비에는 성인이 삶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계획, 준비가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주거 및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낮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부담 등), 낮은 자립준비 정도와 자립의지와 관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책현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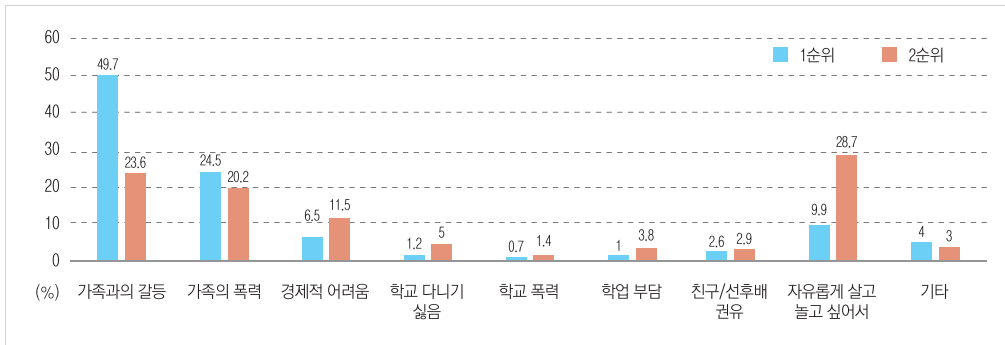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의 가출 청소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자립지원 정책을 법적근거, 정책대상, 급여형태 및 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함.
- 그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내용 및 자산형성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자립관련 시설 이용 연령 및 이용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주로 현물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보호종료 청소년과 같이 자산형성사업 및 자립정착금과 같은 자립준비를 위한 현금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전담/총괄 지원할 기관 설치가 필요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지자체 이양이나 지자체와의 매칭펀딩 방식보다는 지역별 자립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국비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 국내의 자립지원 우수사례로 민관(民官) 협력사업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과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한국소년 보호협회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 이를 위해, 사업 내용과 대상, 운영 예시, 우수 사례,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립 사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립 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과 평가, 자립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다양한 진로 영역 개발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외 사례로 영국의 센터포인트(Centrepoint), 미국의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Sasha Bruce Youthwork), 독일의 오프로드키즈 재단(Off Road Kids Foundation)과 갱웨이(Gangway), 프랑스의 알규 포아예(Foyer les Algues)와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Apprentis d'Auteuil)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민관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 자립지원 전담총괄기구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평가 및 계획 수립, 직업 훈련의 다양화와 같은 함의가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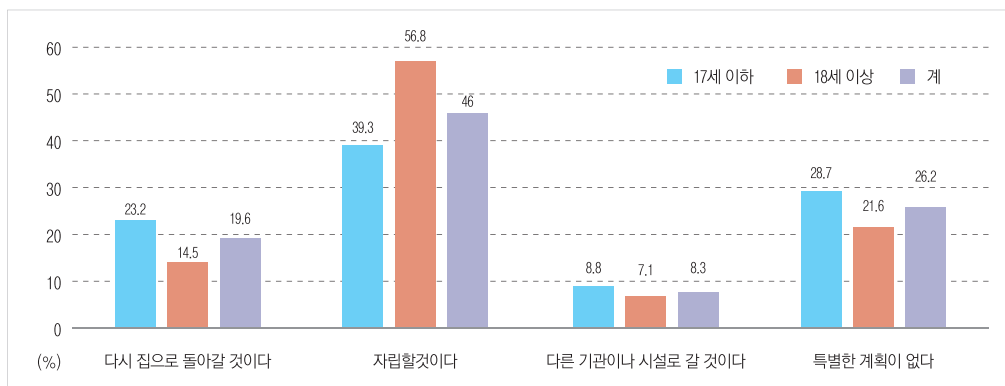
▶ 가정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가정 밖 생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 730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는 가족 간 갈등과 폭력으로 나타남. 73.7%의 청소년들은 집을 나온 후 최소 두 군데 이상을 전전하며 생활하였고 일부는 가출팸을 경험함.



【그림 1】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 (정서적 어려움)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정서적 어려움(스트레스,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분노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계획, 낮은 자존감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 (학업과 일 경험) 가정 밖 청소년의 재학률은 53.1%, 학업중단율은 29.8%로 나타남(고졸 이상은 17%). 일 경험이 있는 경우(59.3%) 비숙련·저임금 근로가 대부분이었고,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었음(84%). 일을 해본 청소년 중 약 20%는 구직 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이유로는 집을 나온 것에 대한 편견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31%).
- (경제적 상황)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의 14.6%는 현재 빚을 지고 있었으며(일인당 평균 액수는 약 265만원), 9.1%는 신용불량 경험이 있었음. 20.8%의 청소년이 저축을 하고 있었으나 평균 액수는 약 112만원으로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액수로 나타남.
- (향후 계획) 응답자 청소년 중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19.6%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46%) 자립하고 싶다고 조사됨.



【그림 2】 가정 복귀 vs 자립 계획

- (직업선택기준)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자신의 능력(26.6%)과 적성(23.3%)으로 과반수 이상 청소년이 다른 외부적 요소보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 등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직업의 장래성과 자아성취 등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 (직업훈련) 조사대상 청소년의 54.9%가 직업/진로관련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직업훈련은 36.5%가 경험하였음, 응답자의 43.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직업훈련관련 정보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진로준비)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 습득과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립의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그리고 가정 밖 생활 이후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의지가 다른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음. 자립의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기술),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취업관련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배움카드제도, 일학습병행제, 기타 정부지원 등의 취업관련 지원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음.
- (자립지원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중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지원 경험률이 각각 60.3%, 60.1%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지원(35.8%)과 취업정보 제공(32.7%)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진로지도와 직업/취업관련 서비스 제공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자립관련 서비스 중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83%,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냄.
- (2차 자료와의 비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와 같은 2차 자료와의 비교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존감, 사회적 역량, 건강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 등은 낮게 나타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또한 일반청소년보다 근로경험과 직업·진로관련 활동/직업훈련의 경험이 더 많았음. 희망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3년 이내 취업계획 비율은 더 높아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학보다 취업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향후 직업선택에 대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한 반면,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였으며 미래에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도 낮았음.

▶ 가정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 만 15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내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연구 주제를 추출/분류하고 항목화한 결과, '가족, 기관생활, 현재 학업 상황, 학업 지속 의지, 근로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 자립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을 위한 준비' 등 12개 주제 항목이 도출됨.
-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양육체계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며,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은 학교나 또래 관계 등 주요 사회화 과정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궁핍한 경제상황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근로 환경은 열악하고 이들의 진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지원과 지지는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 대안으로서 기관 및 종사자의 지원 방안,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지원, 지방 소재 기관의 역량 제고,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 연구,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근로 지원, 건전한 재정 관리 지원,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25명의 학계/현장/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가출 청소년' 용어를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이 덜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대,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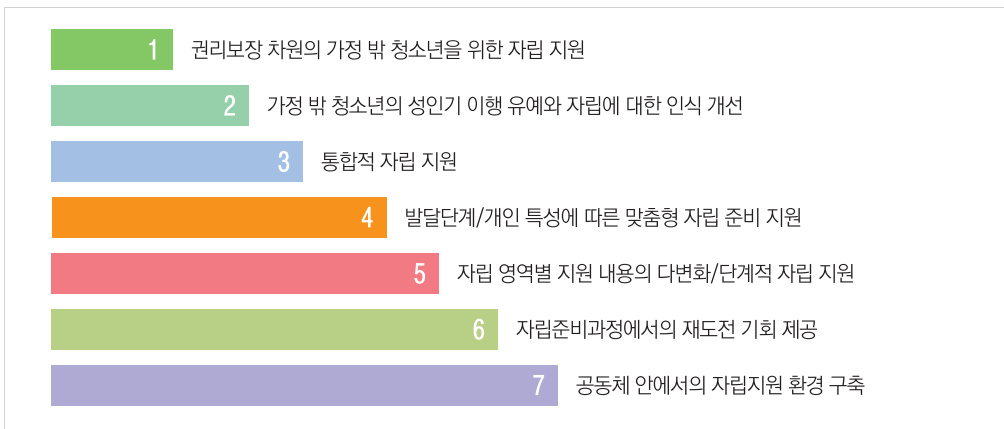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다양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관련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등을 제시함.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식 조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제도/환경적 영역이 시설인프라, 인력보다 더 중요한 자립지원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1순위는 주거지/주거비 지원, 2순위는 자립관련 심리·정서적 지지/동기부여, 3순위는 자립정착금 지원이었음.
-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119명의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가출청소년, 양육거부/유기된 청소년, 가정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 높은 비율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나타난 것과는 달리 아동양육시설(57.5%)과 위탁가정 청소년(35.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아동복지법 우선 적용대상인 청소년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였음.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로 90% 이상의 종사자가 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인관계 훈련, 생활교육, 경제교육, 건강지원, 진로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해당 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자립 동기/의지가 낮아 취업 관련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낮은 학습 수준, 경제적 열악함, 지원체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에 더하여 열악한 재정, 인력의 부족, 한정된 보호기간 등 지원시설의 한계로 청소년들의 자립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남. FGI 참여 종사자들은 거주지/보증금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수준에 맞는 취업 지원,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지원기간의 조정 및 시설 연계 등을 정책적 개선점으로 제시함.

3. 정책제언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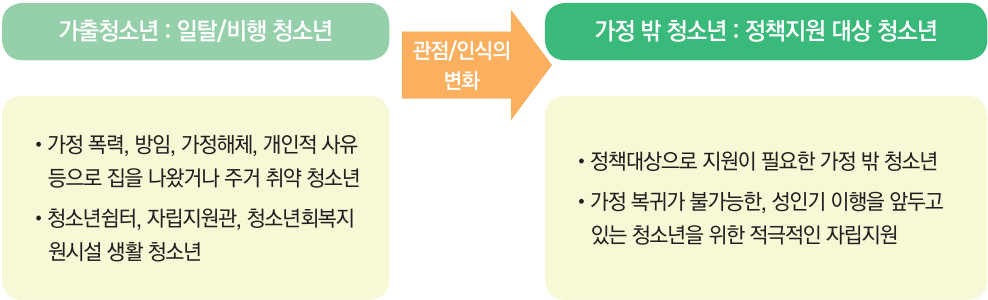
- ‘성인기 이행에 직면하여 가정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조사결과 및 함의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률적 기반 마련, 자립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 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3】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 「환경·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과제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반여건과 환경,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우선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관점/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그림 4】가출/주거 취약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관점/인식의 변화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①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②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④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⑤자립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⑥자립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인력·자원과 활용 관련하여 ①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②종사자 처우개선, ③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제안하였고, 이외에 ④지자체별 지원 내역의 편차가 없는 고른 자립 준비 기회 제공, ⑤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등을 제안함.

▶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과제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자립지원의 방향성 및 환경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 선행 또는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자립지원 정책과제 및 서비스들을 제안함.
-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자립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시되는 주거지원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단계별로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생활 및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취업 지원의 6개 영역에 해당하는 18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함.

【표 1】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추진 단계	세부 정책과제	영역
단기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심리사회적 지원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생활 및 건강 지원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홍보	

추진 단계	세부 정책과제	영역
단기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학업 지원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진로/취업 지원
단·중기	주거지원 우선 확대	주거 지원
	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지원 확대	생활 및 건강 지원
	향후 직업 전망 및 희망 직업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다각화	진로/취업 지원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중기	생활비 및 학비 지원	경제적 지원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학업 지원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진로/취업 지원
	근로 환경 개선	
중·장기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 - 상임위원회 결정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2월 6일 인출.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심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정문진 (2011).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